

# 초기 청소년의 애착과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이 경 남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은 적응 혹은 정신병리에 관련된 후속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중재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기 청소년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내재화/외현화 행동문제의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과 내재화/외현화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를 성에 따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중학교 3개교의 1학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509명의 청소년이다. 이 중 1학년은 251명(49.3%), 2학년은 258명(50.7%), 남학생은 256명(50.3%), 여학생은 253명(49.7%)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빈도와 백분율 및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t검증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는 남아와 여아간의 차이가 없으나 외현화 행동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공통적으로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과 내재화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으로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낮은 애착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며 자아존중감은 이를 부분적으로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외현화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적으로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며 자아존중감은 이를 부분적으로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과 외현화 행동문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낮은 애착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이에 대한 중재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남학생 여학생의 경우 공통적으로 또래에 대한 애착은 외현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